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리품(道利品) ③

有福爲天人 유복위천인
非法受惡形 비법수악형
聖人明獨見 성인명독견
常善承佛舍 상선승불결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이에 부처님께서 가엾이 여겨
그를 위해 참된 이치 말씀하셨네
바른 법을 믿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복이 있으면 하늘이나 사람 되고
법이 아니면 나쁜 몸 받는다
성인은 홀로 밝게 보아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

若不以天 악불종천인
希求求佛 희망구요행
亦不禮佛 亦不禮佛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戒德後世業 계덕후세업
以作福道身 이작복추신
天人稱譽善 천인칭예선
心正無不安 심정무불안

만약 하늘이나 사람을 좇아
요행 있기를 바라지 않고
또 사당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계율의 공덕은 후생의 업
그것으로 지은 복덕 몸을 따르니
하늘과 사람이 착하다 기리고
마음이 바르니 불안전한 것 없다

友賢擇善居 우현택선거
常先爲福德 상선위복덕
勸身從真正 직신종진정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爲惡不念止 위악불념지
日悔不自悔 일박불자회
命逝如川流 명서여천류
是慙守戒戒 시공의수계

어진이와 벗하고 좋은 곳 가려살며
항상 먼저 복덕을 짓고
몸을 경계하여 참된 도리 좇으면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악을 행하면서 멈출 생각 않고
날로 욕정에 결박당해 누워치지 않으면

去惡從就善 거악종취선
避惡知自節 피우지자절
不婬于女色 불음우여색

“몸을 경계하여 참된 도리 좇고
법을 많이 듣고 계율대로 행하라”

저 흐르는 냇물처럼 명은 떠난다
이것이 두렵거든 마땅히 계율 지켜라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令我上首 령아상제수
白生爲被盜 백생위피도
已有天使召 이유천사소
時正宜出家 시정야출가

악을 버리고 선으로 좇아 나아가고
술을 피하여 절제할 줄 알며
여색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이제 내 몸 상체 머리 위에
흰털 생겼으니 목숨 도둑맞았네
이미 하늘 사자의 부를 알리라
이 때라도 마땅히 출가하리라

多聞如戒行 다문여계행
法律精進學 법률정진학
修己無所爭 수기무소쟁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길상품(吉祥品) ①

佛尊過諸天 불존과제천
如來常現義 여래상현의
有梵志道士 유범지도사
來問可吉祥 래문하길상

법을 많이 듣고 계율대로 행하고
꾸준히 노력해 이를 배우고
몸을 닦아 다름없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부처님 존귀하심 모든 하늘 벗어
여래는 언제나 이치 드러내시네
어떤 법지 도사가 와서
무엇이 길상입니까 불었다네

居孝事父母 거효사부모
治家養妻子 치가양처자
不爲空之行 불우공지행
是爲最吉祥 시위최길상

於是佛感傷 어시불민상
爲說眞有要 위설진유요
已信樂正法 이신락정법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집을 다스려 처자를 기르며
부질없는 짓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의 길상이 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해가지어도 어둡지 않은

벽암스님 (도봉사 주지)

요새 금강산 유람을 가느니 마느니 분
주합니다. 두고 온 고향을 멀리서나마 보
고 싶은 실랑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금
강산 관광이 아니라 동일이 되어 휴전선
을 걸어 내 버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
는 바람이 절실합니다.
나도 살아 생전에 휴전선을 넘어 가보
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묘향산입니
다. 열 여섯살의 푸른 나이에 첫 발을 디
뒀던 묘향산. 그 푸른 산빛과 맑은 냇물
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 찬란한 나이에
보현사 큰 방에서 6년을 살다 온 사람이
어느새 일흔 여섯의 나이를 먹었으니 어
찌 그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14살에 서울의 한 집에서 출가를
했는데 처음에는 절집 생활이 뭔지도 모
르고 그저 '내가 살아야 할 곳이 여기인
가 보다' 하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 나
이에 인생을 내다 보는 눈이 뜨였을지
만무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절에 살며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 책
보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절에서는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때야 시절
이 어렵고 당장 한끼 밥을 위해서는 일
을 해야 했으니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현
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내게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 하
는 절에서 일어나 하면서 한끼 밥에 청
춘을 걸 수는 없다는 생각에 큰 절로 떠
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 간 곳이 서대문의 백련사
였고 거기서 사십과정을 배웠습니다. 다
시 바람을 쐬어지고 찾아간 곳이 멀고
먼 묘향산 보현사 도량이었습니다. 당시
보현사에서는 내종과 의전을 함께 가르
친다는 소리를 듣고 '그 곳에 가면 마음
껏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과연 보현사에서는 사십
과 대교과정 가르치고 수학역사, 영
어도 가르쳤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재미도 좋았고 한 겨울에는
원형대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도반들과
밤늦도록 불경 내용을 토론하고 세상 공
부 얘기를 하는 재미도 좋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묘향산의 맑은 계곡에 앉
아 하염없이 흘러 내리는 물줄기를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오르는
한 귀퉁이 있었지요. '자정기의(自淨其
意)'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토록 하염없
이 흐르는 물줄기, 그 맑은 물빛을 보며
'물은 무슨 힘으로 이렇게 맑은 것일까'
'더러 흙탕이 저도 이내 맑은 제 모습으
로 돌아 갈 줄 아는 저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맑아질 줄 아는 힘, 그것은 참으
로 중요한 힘이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본래 저 물처럼 맑고
투명한 것인데, '너'를 만나고 이일 저
일에 부딪치며 혼탁해지고 화를 내고 싸
움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혼탁
해 지는 것이 인간 삶의 과정이라면 할
리 그 탁한 모습을 내던지고 맑은 본래
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
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혼탁한 마음
자리를 빨리 정화해 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요 그 맑은 자리를 오래오래 지키
는 것이란 생각이 이리나, 내 마음도 맑
아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
善奉行)하여 자정기의(自淨其意)면 시제
불교(是諸佛敎)라.”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마음을 맑히는 것이 부처
님의 모든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이란 다툼이 아니라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려

- 약력
· 1923년 서울 생
· 38년 서대문 백련사에서 차학
암스님을 은사로 득도
· 묘향산 보현사에서 대교과정
배움
· 태고종 법규위원장, 고시위원장
등 역임
· 現 서울 도봉사에 주석



좋은 생각 좋은 마음 내고 살면
진리의 자리 누릴 수 있어요
그 자리로 이끄는 것이 불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만 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
는 일은 모두 악한 일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업이 되는 이치도 결국 생
각으로 마음을 흐트리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한다는 것도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선행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하는 일
이면 모두가 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맑은 마음자리를 굳건히 지키
고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
이니 어디가서 따로 부처의 진리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글기 흐르는 냇물도 우리에게 소중
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 다만 눈
밝고 마음 밝은 사람만 그 가르침을 새
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묘향산 계곡에서 마음을 맑히
고 사색 지혜를 생각한 뒤로 나는 될 수
있는데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자 노력했습니다. 남과 다투고 시비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은 내리는 부처를
죽이는 일이라 생각하니 시시비비에 휘
말리는 일도 조금씩 줄어 들더군요.
흔히들 제정해(戒定慧) 3학을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라 말하는데 나는 그 가운

데서도 해학이 으뜸이라 봅니다. 진리의
자리에서 으뜸과 버금을 따질 것은 아니
지만 굳이 따지자면 지혜가 없는 계율도
지킬 수 없고 정진의 힘이 없을 수 없
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맑고 맑아 하얗
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순간 혼탁
해지더라도 얼른 다시 맑아질 수 있는 그
마음 자리에서 지혜가 솟아나고 그 솟구
치는 지혜의 힘으로 살아갈 때 계율도 잘
지키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열고 닫음이 명
확해집니다. 정진의 문에 들어서도 태산
같이 의연한 진리의 자리를 누릴 수 있습
니다. 청정심이 곧 부처인 겁니다.
보현사에서의 공부는 불전의 한량없는
바닷물을 맞보는 계기이면서 물려오는
서구 정신과 학문의 첫 물을 맞보는 그
런 시간이었습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출가한 사람이 보듬고 살아
야 할 마음 단마리를 잘 꾸리는 것이 어
떤 것인지를 알게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6년 시절을 마치고 남으로 내려

氣 치료 능력 전수
수년 혹은 수십년씩 기공 수련을 해가 가능했던 기 치료 능력, 기 응
용 능력이 비법의 재발견과 그 과학화에 힘 입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레이키(REIKI·靈氣)요법이 그 비법이다.
레이키 요법은 그 비법성으로 인해 전승이 끊겼던 티베트 밀교의 한
비법이 20세기 초엽에 일본의 수행자 우사이 미카오(1865-1926)에
의해 재발견된 후 미국으로 전승되어 미국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 간략화되면서 1980년대부터 영국 등
의 의료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계화되고 있는 기 치료법, 기
응용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건강 불안과 생활불안을 안고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에게는 더욱 간편하고 더욱 효과적인 건강법과 생활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것이 레이키 요법이다.
이 레이키 요법은 자격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만 받으면 누
구나 단시일내에 기 치료능력, 기 응용능력이 될 수 있는 비법
중의 비법이다.
○ 레이키 요법의 전수 절차
레이키요법의 전수는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소요일수는
5~10일 정도이다. 필요하면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도 있다.
○ 레이키 요법의 전수 대상자 (4세-83세)
① 스님을 비롯한 성직자와 의사와의 의료적 종사자
② 남에게 좋은 일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
③ 새로운 직업(레이키 요법가)을 가지려는 분
④ 만성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다스리려는 분
⑤ 만성병을 앓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
⑥ 가정과 사회를 평화롭고 문제없게 하려는 분
⑦ 자기와 우주, 이 세상과 저 세상, 명제와 암재계가
한 덩어리임을 깨달으려는 분
○ 레이키 요법의 응용
① 음식물, 물, 약, 씨앗, 사료들에 기를 넣는데 쓰인다.
② 감정, 마음, 카르마(업),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행동
경태 등을 개선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③ 미용효과와 단식효과를 올리는 데 쓰인다.
④ 원격치료, 동식물의 치료, 환경을 정화하는 데 쓰인다.
⑤ 소망성취, 미래에 일어날 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
쓰인다. 기타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레이키마스터 번역 저술가 박희준 (朴熙俊)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7가 89 피어선 B/D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02)720-5682, 725-2311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말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최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동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우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볼로 다려서 만듭니다.
왕기지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
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영진, 출장) (053) 655-3027

천우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햇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립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열감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료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토산 藥 藥만을 찍으면서 시이만 효력이 있습니다.
인위적 보충제나 정유는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산家
(02) 777-0105 (우편번호)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탕화
깨금 불상, 시왕개재,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 ~ 8
F A X : (053)639-0407